

대중문화에 나타난 웃음의 양가성

체제로부터의 일탈인가 사회적 안전판인가...

함부로 모험에 나서지 않는 대중문화의 '웃음'

박근서 | 경운대 사회과학부 교수

웃음을 바라보는 시각에는 크게 두가지가 있다. 그 첫째는 웃음이란 민중적 삶의 힘과 에너지의 표출로 엘리트문화를 전복하고 그 규범을 해체한다는 입장이다. 다른 견해는 웃음이 세계를 부정하고 교정하는 진보적 힘이 아니라 그것을 긍정하고 반복하는 보수적 힘이라고 본다. 대중문화에 나타난 웃음 또한 이같은 양가성을 띠고 있다. 전복적이지만 포섭된 것이고, 위반이지만 처벌되지 않고, 일탈이지만 비난받지 않는 것이다.

웃음은 대중문화의 가장 중요한 요소다. 요즘의 대중문화는 '웃음'과 '코미디'를 빼놓고는 이야기하기 불가능할 정도다. 이미 우리의 대중문화는 웃음의 바다로 가라앉아 버린 지 오래다. <조용한 가족>에서 <하면 된다>로 이어지는 소위 '코믹 블록버스터'라는 장르의 등장, <순풍산부인과>와 <세 친구> 같은 시트콤의 인기, <서세원 쇼>의 '토크박스'와 <개그 콘서트>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그 증거다. 물론 대중문화와 대중매체에서 웃음의 문제는, 그것을 생명으로 하는 코미디 및 그 유사 장르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미 황수관 박사의 우스개 섞인 건강강좌와 코미디만큼이나 재미있는 구성애의 성교육강좌가 세상을 휩쓸었다. 모 통신회사와 음료회사의 광고에서 드러나듯 텔레비전 광고는 '코믹'과 '엽기'로 치달고 있다. 최근 우리 대중문화의 가장 중요한 화두 가운데 하나는 분명 '웃음'이다.

대중문화의 웃음에 인색했던 지난 시절

대중문화가 웃음에 파묻혔다고 해서 문제가 되진 않는다. 오히려 웃음은 건강과 행복의 증거다. 웃음은 우리의 삶에 건강과 행복을 안겨주기 때문이다. 이렇듯 웃음은 우리 삶의 긍정적 요소다. 하지만, 웃음을 긍정하기 위해 인간은 적지 않은 시간을 허비해 왔다. 특히 우리 대중문화 속의 웃음에 대해 사회의 시선은 결코 곱지 않았다. 1970년대 우리 사회는 '코미디 폐지론'이라는 극단적 처방조차 서슴지 않았다. 그 때부터 30년 가까운 시간이 흐른 1990년대에도 대중문화 속의 웃음에 대한 사회적 시선은, 어떤 측면에서는 여전히 살풍경했다.

이미 지난 이야기라고 치부하기에는 지나치게 심각했다. 웃음이

세상을 지배한다는 선언, 그 뒷자리에는 대중문화의 웃음이 지닌 저질성과 선정성을 고발하는 담론들이 1970년대와 다름없이 세상에 넘쳐흐르고 있었다. 그렇다면 지금은 사정이 좀 나아졌는가? 확실히 대중문화 속의 웃음에 대한 태도는 바뀐 것 같다. 예전에 비해 훨씬 긍정적이다. 90년대처럼 코미디 혹은 오락 프로그램 일반을 싸잡아서 비난하는 일 따위는 찾아보기 힘들다. 그럼에도 몇몇 프로그램에 대한 비판은 예전에 비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대중문화 속의 웃음이란 여전히 공허하고, 허무하며, 억지스럽다.

우리 대중문화 속 웃음에 대한 세간의 평가는 "알맹이가 없다"는 말로 요약된다. 날카로운 풍자와 따뜻한 유머가 결여돼 있다는 말이다. 사회적 담론에서 웃음이란 무릇 사회에 대한 비판적 시선과 더불어 인간에 대한 따뜻한 애정에 기초해야 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우리의 대중문화 속 코미디는 단지 웃음만을 목적할 뿐, 풍자와 해학이라고는 찾아 볼 수 없는 공허한 몸짓, 속없는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가된다. 어떤 부분에서만은 확실히 그러하다. 조직폭력배, 룸살롱, 나이트 클럽을 낳지 않고는 이야깃거리가 없는 개그맨들이나, 끝간데 없이 상대방을 바보로 만들어 버리는 오락 프로그램의 진행자들은 여전히 공허·허무·억지의 틈바구니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일탈'과 '포섭' 사이에 벌어지는 불안한 줄타기

대중문화 속의 웃음은 양가성을 지닌다. 그것은 사회에 대한 비판과 의혹의 눈초리며, 동시에 그 속으로의 소리 없는 포섭이다. 코미디 혹은 그것의 본질인 웃음은 상식·규범·의미의 세계에 도전한다. 당연함을 뒤집어 다른 가능성을 열어 보이는 일. 웃음은 일

탈과 위반으로 우리 세계에 새로운 상식, 새로운 규범,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다. 그러나 이런 일탈과 위반은 이해와 관용의 틀 안에서만 가능하다. 그 틀 안에 들지 못할 때, 일탈과 위반은 유쾌한 웃음이 아니라 불쾌함과 심각함으로 자리한다. 농담 끝에 다툼이 있고, 우스개 뒤에 씩씩함이 남는 까닭은, 그것이 이해와 관용의 틀을 넘어 몰상식, 탈규범, 무의미의 영역에 떨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웃음 그리고 코미디는 상식-규범-의미의 축과 몰상식-탈규범-무의미의 축, 그 사이에서 벌어지는 불안한 줄타기인 셈이다.

정상에서 어긋나더라도 불쾌감을 유발해서는 안된다. 이 조건은 웃음과 코미디로 하여금 일탈과 위반의 범위와 정도를 스스로 제한하도록 만든다. 그러므로 대중문화 속의 웃음은 기존의 상식·규범·의미에 대한 미심쩍은 비판이며, 그것으로의 불편한 귀환인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웃음이란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지 않는 악에서 발생한다”고 했고, 키케로는 이를 ‘기대의 배반’이라는 말로 표현했다. 그에 따르면, 웃음은 “기대를 배반”함으로써 유발되는 것이다. 이는 우리가 세상을 재단하는 모든 기준으로 부터의 일탈을 의미하며, 다만 그것은 존경·동정·처벌과는 관계없는 특별한 성질의 것이다.

낯은 질서 전복하려는 민중적 힘의 표출

바흐친은 웃음이 표현하는 민중적 힘의 표출을 높이 평가한다. 그는 카니발과 카니발의 웃음이 낯은 세상과 낯은 질서를 전복하려는 민중적 원망의 표현이라 생각했다. 그리고 그 원망은 하나의 힘으로 현실세계에 어떻게든 영향을 미치리라 기대했다. 이런 생각은 현대 대중문화 연구에서 매우 유력한 견해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피스크를 비롯한 포퓰리스트들의 주장이 그것이다. 이들에 따르면, 즐거움을 추구하는 민중들은 지배 이데올로기에 썩워진 당의만을 활으려는 알파한 쾌락주의자 그 이상이다. 민중들은 이 세상을 갈아엎을 힘과 에너지가 있다. 그리고 그 힘과 에너지는 또 다른 이데올로기에서 비롯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존중하고 경험을 소중히 하는 그들의 욕망과 본성 그 자체로부터 흘러나온다. 그러므로 웃음이란 민중적 삶의 힘과 에너지를 표출하는 것이며, 이는 근본적으로 공식화된 엘리트



코미디 혹은 그것의 본질인 웃음은 상식·규범·의미의 세계에 도전한다. 그러나 이런 일탈과 위반은 이해와 관용의 틀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다. 만약 이 틀을 넘어서고자 시도할 때 그것은 웃음이 아니라 불쾌감을 유발하게 된다. 사진은 코미디 프로그램의 한 장면.

문화를 전복하고 그 규범을 해체한다.

그러나 모든 논자들이 바흐친과 같은 민중주의적 견해만을 피력하지는 않았다. 루나차르스키의 ‘사회적 안전판’에 대한 논의가 대표적이다. 그는 카니발과 카니발의 웃음이 단지 외양적 전복과 외양적 일탈로 하여금 현실의 질서에 좀더 잘 적응하도록 만들 뿐이라고 주장했다. 다시 말해 웃음은 일종의 스트레스 해소 공간일 따름이라는 것이다. 루나차르스키에 따르면, 웃음은 현실 세계의 부조리를 허구적 공간 안에 풀어놓는 비겁한 짓거리에 지나지 않는다. 웃음은 세계를 부정하고 그것을 교정하는 진보적 힘이 아니라, 그것을 긍정·반복하는 보수적 힘이다. ‘즐거움이라는 당의를 입힌 지배집단의 이데올로기’라는 대중문화에 대한 해묵은 정의는, 그에게 웃음의 경우라 해도 결코 예외가 아니다.

‘멸종’ 위기에 놓인 진정한 웃음

웃음은 양가성을 지닌다. 그것은 새롭지만 진부하고, 전복적이지만 이미 포섭된 것이며, 위반이지만 처벌되지 않고, 일탈이지만 비난받지 않는다. 웃음에 대한 평가는 그러므로, 정말 골치 아픈 일이다. 우리의 대중문화 속 웃음은 한편 긍정적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부정적이다. 긍정적 측면이라면 웃음 일반이 지닌 여러 효과들,

즉 경직된 사회규범을 이완시키고, 의미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 보인다는 따위가 될 것이다. 하지만, 경험적인 수준에서 이런 일반적 효과를 구현하는 문제는 아직도 공허·허무·억지라는 불명예스런 혐의에서 조금도 자유롭지 못하다.

웃음에 대한 긍정적 담론은 한없이 쏟아지고 있지만, 개별 프로그램에 대한 비난과 비아냥은 시간이 흐른다는 사실조차 무색하게 만든다. 이런 사실은, 우리 대중문화 속 웃음이 지닌 양가성, 그것의 표출적 현실이다. 아무래도 우리의 대중문화 속 웃음은 그것을 지탱하는 두 축 가운데, 상식-규범-의미의 축에 더 가까운 모양이다. 균형을 유지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대개는 조금씩 어느 한 쪽으로 쏠리게 마련이다. 더구나 하나의 상품으로 시장을 전전하는 대중문화 속 웃음이란, 그 태생 자체부터 균형 있는 표현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우리의 대중문화 속 웃음은 함부로 모험을 즐기지 않는다. 성공 뒤의 영광과 환희를 기대하기보다는 실패 뒤의 좌절과 추락을 더욱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웃음의 홍수, 하지만 진정한 웃음은 멸종의 위기에 선 희귀종이다.●